

① 이정현 카드 통할까 ② 권은희 득표율 관심 ③ 득표율 전국 최고는

■ 광주·전남지역 7·30재보선 3대 관전포인트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당선'이라는 공식이 일반적이어서 공천 후에는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 광주·전남지역 7·30 재보선에는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정현 전 후보수석이 순천·곡성에 출마, 이번을 노리고 있어 이번 선거의 최대 관전포인트가 되고 있다. 또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광주 광산을에 전략공천을 받아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전남지역 후보 중에서 누가 전국 최고득표율을 올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정현의 도전 성공하느냐=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이 후보는 순천·곡성에 출마하면서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선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의 무모할 것 같았던 도전은 순천·곡성 유권자들에게 파장을 일으키며 선거판을 들쭉지게 했고 이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상황까지 됐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서갑원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산하는 양상이다.

물론 이 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바다의 분위기가 표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2년여전 18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에 출마했을 때도 이 후보는 막판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으나 개표 결과 아쉽게 패했던 전철이 있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권은희의 득표율은=권 전 과장은 광주에서는 '스타'로 꼽혔다. 때문에 당선을 의심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의해 수도권 선거에 역이용되면서 권 후보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여당이 수도권 선거와 전혀 상관없는 후보를 흡집 내며 전체 재보선판을 흔들면서 광주에서는 "2년 후 총

선에 출마하는 게 좋았는데..."라는 아쉬움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권 후보의 득표율이 애초 예상보다 높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통진당, 정의당, 무소속 후보 등 모두 5명이나 되는 후보가 출마해 표를 나눠가면서 득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22일 "공천 후유증에다가 새누리당의 권 후보에 대한 공격이 수도권 선거뿐 아니라 광산을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쳐 최악의 경우 과반 득표를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최고 득표율은 누구? =각종 선거의 최고득표율은 여야의 텃밭인 영·호남에서 나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보선 호남지역구는 4곳. 그중 후보의 경쟁력과 선거구도,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할 때 후보가 2명뿐인 담양·함평·영광·장성의 새정치연합 이계호 후보와 3명이 출마한 나주·화순의 새정치연합 신정훈 후보 중 한 명이 최고득표율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 기장갑과 울산 남구에서 선거가 치러지지만 야당 후보의 경쟁력과 당세를 고려했을 때 호남 후보들보다 높은 득표율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정현 '나홀로 유세' 7·30 국회의원 순천·곡성 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22일 오전 순천 아랫장에서 '나홀로' 유세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갑원 뽑아주세요"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왼쪽) 대표가 22일 순천을 방문해 순천시민들에게 7·30 국회의원 순천·곡성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갑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경제살리기 총력' 주문

2기 내각 첫 국무회의 주제

민생경기 회복 집중 당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2기 내각에 경제활성화와 민생경기 회복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경제 살리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경제팀에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수차례 당부했다.

특히 이를 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 달라"면서 ▲총력전 ▲규제완화 ▲주도면밀한 정책집행 등 3가지의 이행을 꼭 집어 요구했다.

또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주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2기 내각 출범과 맞물려 시작되는 집권 2년차 하반기를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총력전 주문과 관

련, "단순한 수치는 정말 필요 없다"며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회복을 느낄 수 있는 체감효과, 일자리 창출과 투자효과가 큰 곳에 재원을 집중해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선택과 집중, 효율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며 "고용을 중심으로 한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돈을 들이지 않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국무위원 한분 한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당부의 배경과 관련,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을 되찾아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쌍끌이 유세 총력전

김한길·박영선 호남·충청서... 권은희 공세 차단 주력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호남과 충청 선거현장에서 쌍끌이 유세 지원에 나서는 한편 새누리당의 광주 광산을 권은희 후보 재산 의혹 공세에는 적극적인 역공을 펼쳤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 대표는 이날 순천·곡성을 찾아 서갑원 후보 지원에 나섰다.

김 대표는 유명연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지 40일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된 사실과 관련해 "이번 일은 경찰 지휘부가 책임질 사안이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일이다. 대통령이 답할 문제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라고 여권

에 각을 세웠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대전을 찾아 대덕구에 출마한 박영순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쳤다.

박 원내대표는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2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대선시장 선거 승리의 의미에 방점을 찍는 선거"라며 "권선택 시장의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박영순의 기적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권은희 후보 재산 의혹 공세에 맞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공력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역공을 펼쳤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구원파 최측근과 흥신학원에서 한 배를 탄 동자를 니경원 후보, 마트를 논으로 속여 4억여원을 축소 신고한 김용남 후보, 자산 가치 555억원의 비상장주식을 3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김포 흥철호 후보는 새누리당이 들어낸 잣대로라면 모두 후보 사퇴감"이라며 주장했다.

김영록 원내 수석부대표는 권은희 후보의 '저격수'로 나서는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을 겨냥, "윤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두 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69억원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새누리당과 윤 사무총장의 계산법대로 이들 법인의 자산을 보유 지분으로 계산하면 총 1400억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전남도당 순천에 천막당사

순천·곡성 이정현 바람 차단 주력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남도당을 무안에서 순천으로 옮기고 오는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올인'하고 나섰다.

이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일으키는 '바람'이 예상대로 차단되고, 선거일까지 '이정현 바람'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22일 순천 선거관리위원회에 도당 사무소 변경 신고 후 순천시 연향동 조은프라자 앞 공용주차장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도당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안에 있는 전남도당을 아예 순천으로 옮긴 것이다. 도당은 이날부터 천막당사에서 중앙당·도당

당직자를 비롯한 지역 당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며, 서갑원 후보의 선거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당직자들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순번별로 당직근무를 서고, 천막당사에 현장 민원실을 설치해 곡성·순천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기로 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이윤석 전남도당 위원장 주재로 선거상황 점검회의를 갖는 등 비상선거지원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TRIAISHUIMA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2. 단열베이스카펫 /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